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동관 6층 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해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는 해마다 유행이 예측되는 균주를 포함한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사진은 시행 첫날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지나호 정답



제756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꿈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이야기가 있는 산책 - 미니마타병을 둘러싼 동서양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건진운영팀 전수린 사원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천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5년 10월 15일(수)

발표 제760호(2025년 11월 1일 발간)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모미영(암병원간호2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문화정(외래간호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봉미령(치과)
우제광(중환자간호팀)

피톤치드 룸&패브릭스스프레이
남궁승(진단검사의학팀)
유희망(진단검사의학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김형돈(종양내과)
류민희(종양내과)
류신애(응급간호팀)
서기은(적정진료팀)
조혜란(수술간호팀)



서울아산병원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VOL.758 2025. 10. 1



먼저 건넨 안부, 함께 받은 감사... 고향 정선에 닿은 마음

9월 23일 이른 아침, 우리 병원 무료진료버스

강원도 정선군 남면 민동산문화체육센터로 향했다. 진료 시작 전부터 현장은 진료와 검사를 받으려는 주민들로 북적였다. 순서대로 진료를 받으며 부스에 앉은 한 분 한 분께 우리 의료진의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따스한 인사가 전해졌다. 진료소를 나서는 주민들은 "고마워요"라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틀간 진행된 의료봉사에서 주민 160여 명이 진료와 검사를 받았다. 우리 병원은 직원이 추천한 지역 중 도심 접근성이 낮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을 찾아가는 '직원 추천 의료봉사'를 시행하며 사회적 책임은 물론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사진은 의료봉사 첫날인 9월 23일 직원봉사단과 주민들이 간이 진료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관련기사 4면)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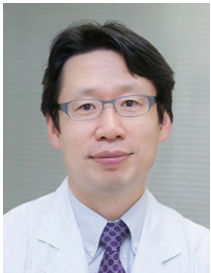
02 NEWS 승모판 역류증, 중증이면 증상 없어도 조기 수술해야

08 AMC IN(人)sight 간이식·간담도외과 김지훈 부교수

10 잡(job)·담(談) 환자안전을 위한 동행

15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돌아오고 싶은 곳

승모판 역류증, 중증이면 증상 없어도 조기 수술해야



강덕현 교수

승모판 역류증은 심장의 좌심실과 좌심방 사이에 있는 승모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 좌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이 좌심방으로 역류하는 질환이다. 지속되면 심부전이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지만, 중증이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학계에서는 적절한 수술 시기에 대해 입장이 나

뉘어져 있었다.

최근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팀이 중증 승모판 역류증 환자는 무증상이라도 조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장기 생존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국내 중증 승모판 역류증 환

자 1,063명을 20년 이상(평균 12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조기에 수술받은 환자 545명은 증상 발생 후에 수술받은 환자 518명보다 심장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누적 심장 사망률은 ▲조기 수술군 5.6% ▲관찰군 17.4%로 장기간 추적 시에도 두 그룹 간 격차가 유지됐다. 두 그룹의 승모판 성형 수술 성공률은 ▲조기 수술군 97% ▲관찰군 84%로 나타났다. 이는 무증상일 때가 수술 난이도가 낮으므로 성공적인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덕현 교수는 “중증의 무증상 환자들은 증상이 없어도 판막은 심하게 망가져 있는 상태다. 이번 연구는 조기에 적극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나은 치료임을 제시한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심장학회가 발간하는 세계적 학술지 「써큘레이션」 최신호에 게재됐다.

노년 입원 환자 위험 예측 척도 국내 첫 개발



이은주 교수



백지연 조교수



장건영 임상강사

우리 입원 환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년 환자들은 입원 후 섬망, 낙상, 합병증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고위험군 환자를 조기에 선별하기 위해 임상 허약 척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왔으나 주로 환자의 이동 능력 평가에 치중돼 있어 예측력에 한계가 있었다.

노년내과 이은주 교수, 백지연 조교수, 장건영 임상강사 연구팀은 기존 임상 허약 척도에 추가 임상 데이터를 통합해 입원 첫날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급성기 노인 위험 척도’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연구팀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우리 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 환자 2만 1,757명의 진료 데이터로 머신러닝으로 분석했다. ▲임상 허약 척도 ▲혈청 알부민 수치(영양·면역) ▲CRP 수치(염증 반응) ▲혈색소(빈혈 여부) ▲입원 전 복용 약물 수 등 총 5가지 지표를 주요 요인으로 도출해 급성기 노인 위험 척도를 개발했다. 예측 정확도는 83.7%로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였다. 기존 임상 허약 척도의 정확도는 79.8%, 나이를 통한 예측 정확도는 63%에 그쳤다. 또한 동일한 허약 척도 점수군 내에서도 위험도를 세분화해 어떤 환자가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가려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퇴원 30일 내 재입원, 응급실 재방문, 입원 기간 연장, 신속대응팀 호출 등 위험 발생이 증가했다. 우리 병원은 급성기 노인 위험 척도를 의료정보시스템에 반영해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지표를 실시간 확인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고위험군 환자에 대응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노인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미국의료관리자협회저널」 최신호에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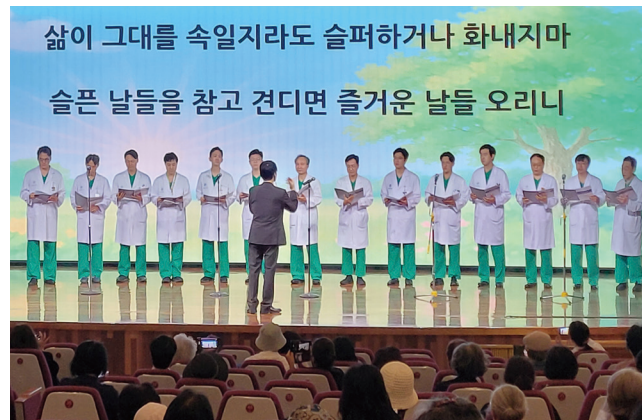
의사과학자연구단-UNIST 공동 심포지엄



의사과학자연구단-UNIST 공동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생명연구소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이 9월 12일 연구원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의사과학자연구단을 포함한 우리 병원 의료진과 UNIST 교수진으로 구성된 4개 공동연구팀 등 연구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ADHD에 대한 다중오믹스 접근 ▲망막과 종양의 중개 연구 등에 대한 발표와 ▲AI 예측기술 및 디지털 정밀의료 ▲다중오믹스 기반 질병 기전 연구 ▲암 유전체 및 면역치료 타겟 발굴 ▲신경정신질환 기전 및 중개 연구를 주제로 그룹별 회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유방암 건강강좌



유방암 건강강좌에서 우리 병원 교수중창단이 특별 공연을 하고 있다.

유방암 건강강좌가 9월 24일 동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유방암 환우와 보호자, 의료진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유방암 치료를 위한 림프절 수술 및 방사선 치료의 변화 ▲유방암 치료 후 림프부종 등 후유증 관리 ▲유방암 환자를 위한 건강식단 등 유방암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주제들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로 구성된 달리기 모임, 등산 모임 등 동호회 소개와 우리 병원 교수중창단의 특별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두경부 서울 포럼



두경부 서울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1회 두경부 서울 포럼이 9월 13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실제적 의사결정: 달라지는 갑상선암 치료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갑상선 결절과 암의 최신 관리 전략 ▲로봇 갑상선 절제술 술기 비교 ▲수술 후 합병증 예방 및 관리 ▲재발성·진행성 갑상선암의 수술적 치료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비인후과 최승호 교수는 “갑상선 결절과 암에 대한 분류, 진단, 치료 전략부터 재활까지 임상 현장의 고민과 결정을 공유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에서 직원 추천 의료봉사



사회복지팀 전성훈 교수가 간이 진료소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직원이 추천하는 의료취약 지역을 찾아가는 직원 추천 의료봉사가 9월 23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정선군 남면에서 진행됐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우리 병원 직원 15명이 참여했다.

직원봉사단은 정선군보건소와 협력해 민동산문화체육센터에 간이 진료소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 160여 명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촬영 ▲혈액·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영양수액 투여 ▲생활습관 상담 등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약을 처방하고 생활관리 지침을 안내했으며 정밀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인근 의료기관에 의뢰했다.

의료봉사 첫날인 9월 23일 진료를 받은 정찬영 씨(80세, 남)는 “아픈 곳이 있어 진료를 보고 싶어도 가장 가까운 원주나 춘천의 대학병원까지 가려면 2시간이나 걸려 참고 지냈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니 너무 감사하다. 큰 병원에서 진료해 주니 믿음이 가고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줘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의료봉사 지역을 추천한 영상의학팀 전재성 주임은 “아버지의 고향인 정선은 제 어린 시절 추억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동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직접 살피고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우리 병원은 2011년 5월 '내 고향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전국 의료취약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더 많은 의료취약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이 추천하는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선군 방문까지 총 104회 동안 1만 4,000여 명의 주민을 진료했다.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고, 지자체 및 보건소와의 협력을 강화해 맞춤형 검사, 건강 교육, 치료 연계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 육성R&D사업 성과교류회



9월 19일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R&D사업 성과교류회가 9월 19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난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

최된 이번 성과교류회는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사업과 연계된 교수 창업기업의 주요 성과와 플랫폼을 공유하고 기업 및 연구자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연구중심병원 연구자와 참여 기업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각 세션에서는 ▲의료로봇 임상 실용화(의공학연구소 최재순 교수) ▲암 치료 여정의 네비게이터(종양내과 김태원 교수) ▲의료특화 인공지능 첫걸음(심장내과 김영학 교수)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승일 병원장은 “이번 성과교류회가 단순한 성과 교류를 넘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과 융합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체교섭 조인식



단체교섭 조인식에서 박승일 병원장, 최희선 보건의료노조위원장(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단체교섭 조인식이 9월 15일 동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조인

식에는 박승일 병원장, 김명숙 간호부원장, 정태경 관리부원장 등 사측 교섭위원과 최희선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이성영 서울 아산병원 노조지부장 등 노측 교섭위원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7차 교섭을 거쳐 8월 26일 잠정 합의에 이르렀고, 8월 27일부터 3일간 실시한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95.6%로 타결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2.6%, 복지포인트 30만 원 인상 ▲위기극복 격려금 100만 원 지급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인력 총원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건강휴가 확대 및 건강검진 개선 등이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신체장이식외과 신성 교수가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우리 병원 장기이식센터와 사단법인 생명잇기가 공동으로 주최

한 제4회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이 9월 12일 동관 직원식당 앞에서 진행됐다. 장기기증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우리 병원 직원 및 내원객 14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80여 명이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밝혔다. 현장에서는 장기기증의 의미와 절차를 안내하는 홍보물 배포와 함께 캘리그라피 전시, OX 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됐다. 황신 장기이식센터소장은 “9월 장기기증의 달을 맞아 준비한 이번 캠페인이 우리 병원 장기기증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증진센터 업무개선 발표회



건강증진센터 업무개선 발표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 업무개선 발표회가 9월 24일 동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건강증진센터는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MIC(청년중역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청년중역회 3기의 업무개선 활동과 성과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발표회에서는 ▲건강증진센터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서울 아산병원 앱을 이용한 건강증진센터 업무효율화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재난대비 모의훈련 이어져



9월 11일 시행된 재난대비 종합 모의훈련에서 중환자간호팀 직원들이 환자를 대피시키고 있다.

원내 재난상황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이 9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9월 11일에는 우리 병원과 송파경찰서, 방이119안전센터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재난대비 종합 모의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은 중환자실 내 홍기 난동, 방화 시도 및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으며 중환자간호팀, 보안관리팀, 시설팀, 대피지원대 등 직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에서는 ▲홍기 난동자 제압 및 경찰 인계, 피해자 응급처치 및 이송 ▲소

화전을 이용한 화재 1차 진화 및 부상자 이송 ▲거동 여부와 중증도 등을 고려한 환자 유형 분류 및 대피 등을 점검했다.

9월 22일에는 감염관리실 주관으로 감염병 재난대비 모의훈련이 진행됐다. 서관 5층 암병원주사실과 감염관리센터 고도 격리구역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이제환 진료부원장, 정용필 감염관리실장 등 평가단을 비롯해 암병원간호2팀 암병원주사실1 유닛, 응급간호팀, 감염관리팀 의료진과 송파구보건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휴가를 다녀온 여성이 예정된 항암제 투약을 위해 암병원주사실에 입실한 뒤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격리 조치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평가는 ▲의심 환자 스크리닝 ▲환자 임시격리 및 노출환자 관리 ▲대응체계에 따른 보고 및 고도격리구역 이송 순서로 진행됐다.

이제환 진료부원장은 “홍기난동, 방화뿐만 아니라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등 모든 재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평소 얼마나 대비를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앞으로도 충실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재난상황에서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달의 후원자

개인 및 단체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강승훈	150,000원
송화재단	10,000,000원
영진앵글(주)	70,000,000원
이채윤	3,000,000원
조영수	100,000,000원
주식회사 송화썬크루즈	100,000,000원
(주)풍림	100,000,000원
하명준	100,000,000원

불우환자 지원

권도형	100,000원
권민영	3,650,000원
김남준	100,000,000원
김민정	200,000원

마디척재활의학과	1,000,000원
영진앵글(주)	30,000,000원
윤용로	5,000,000원
장현중	1,000,000원
(주)더블유제이홀딩스	10,000,000원
최영남	500,000원
최운정	3,000,000원

연구

윤용로	5,000,000원
-----	------------

직원 및 직원가족

불우환자 지원

안유라	3,000,000원
-----	------------

- 2025년 9월 14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Zoom in]



그룹 방탄소년단의 RM(본명 김남준)이 우리 병원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RM은 “생일을 맞아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후원을 결심했다. 치료가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RM의 후원금은 불우환자의 치료비와 수술비 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동 정

최경호 교수 대한임상통증학회장



재활의학과 최경호 교수가 9월 20일 열린 대한임상통증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2000년 창립된 대한임상통증학회는 근골격계 질환 통증의 진단과 치료, 재활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 교수의 임기는 2025년 9월부터 2년이다.

종양내과 의료진 국책과제 수주



윤덕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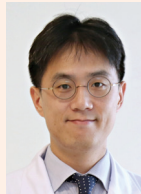
조형우 조교수



형재원 조교수

종양내과 윤덕현 교수, 조형우·형재원 조교수팀이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국책과제에 선정됐다. 기존 CAR-T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항-CD19 CAR-T 치료제 ‘AT101’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연구다. 연구팀은 2027년 8월까지 2년간 기존 CAR-T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 또는 불응성을 보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CAR-T 치료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 의료진 학회서 수상



강성한 부교수



윤수현 진료전임강사



최은석 차장

소아청소년중앙혈액과 강성한 부교수, 윤수현 진료전임강사, 어린이병원간호팀 최은석 차장이 9월 11일부터 3일간 열린 제9차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강성한 부교수는 ‘트레오살판 기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를 이용한 소아 원발성 혈구탐식림프조직구증에서의 생체외 αβ+T세포 제거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 일치 공여자 이식과의 비교 분석’을 주제로 최우수연제상을, 윤수현 진료전임강사는 ‘재발성 중추신경계 생식세포종양에 대한 고용량 항암 화학요법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포함한 구제 치료의 예후 분석’을 주제로 우수연제상을 받았다. 최은석 차장은 ‘소아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서 CD45RA 제거 공여자 림프구 조기 투여를 통한 빠른 바이러스 조절 및 항바이러스제 비용 절감’을 주제로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신성 교수, 김준기 부교수 국책과제 수주



신성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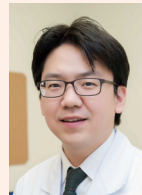


김준기 부교수

신·철헤장이식외과 신성 교수와 융합의학과 김준기 부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미래도전연구지원 과제에 선정됐다. 연구 주제는 ‘신장이식 거부반응의 정밀한 진단을

위한 엑소좀-순환 세포 유리 DNA-표면증강 라만 분광법-인공지능 융합 시스템 기술 개발’이며 이식 환자의 맞춤형 면역학적 모니터링과 조기 거부반응 진단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연구 기간은 2030년 9월 1일까지로, 총 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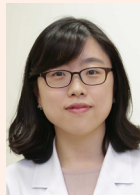
내분비내과 의료진 학회서 수상



김범준 교수



김원구 교수



전민지 부교수

내분비내과 의료진이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김범준 교수는 9월 5일부터 4일간 열린 미국 골대사학회 연례학술대회(ASBMR 2024)에서 ‘에스트로겐 결핍 근감소증 치료 타겟으로써의 ALDH1A1’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상을 받았고, 김원구 교수와 전민지 부교수는 8월 29일부터 이틀간 열린 대한갑상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갑상선암에서 MCT4의 발현’을 주제로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김경미 부교수 국책과제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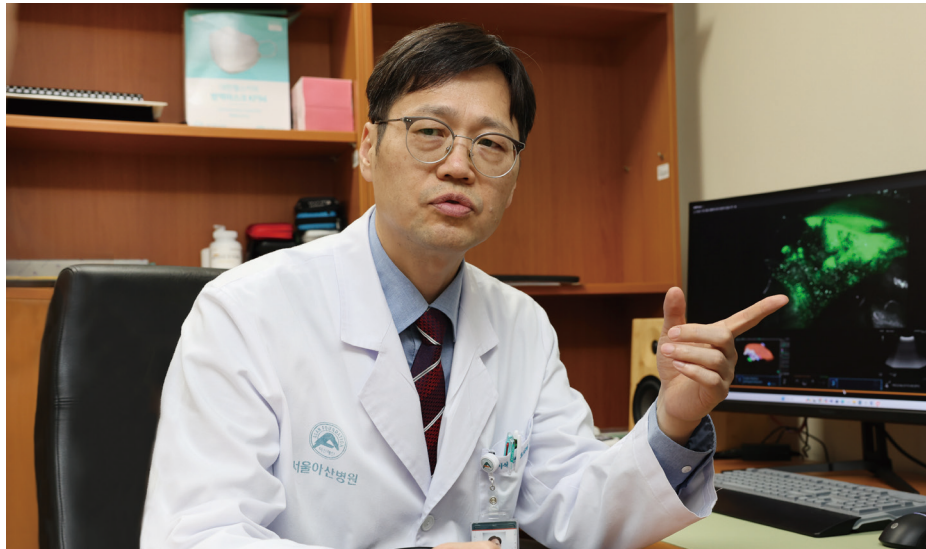
마취통증의학과 김경미 부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개인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창의연구형)에 최근 선정됐다. 김 부교수는 2025년 9월부터 2년 동안 ‘임상환경에서 전신마취약제의 안전한 개별화 맞춤 투약을 위한 집단약동약력 모델링과 머신러닝기술을 결합한 투약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다.

박기홍 의학물리연수자 구연발표상



의학물리지원실 박기홍 의학물리연수자가 9월 11일부터 3일간 열린 제70회 한국의학물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생성형 딥러닝 기반의 치료 전 QA용 EPID 영상 예측: 라벨 데이터 형태 및 장비 일일 변동성의 영향 고려’를 주제로 구연발표상을 받았다.

“간 절제 수술에 더 많은 도전 이어가고 싶어”



간이식·간담도외과 김지훈 부교수 혈관이 많고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한 간은 절제할 때 상당한 출혈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개복이나 복강경 기구를 통한 절제가 주를 이뤄왔다. 김지훈 부교수는 3차원 영상과 형광 조영 물질을 활용한 로봇 수술로 고난도 간암 수술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오늘의 고민은 항상 ‘어떻게 하면 더 간을 잘 절제할 수 있을까?’예요. 어제의 수술을 복기하고 내일의 수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오류를 줄여나가요. 그렇게 수술 수준을 높여가는 거죠.”

호기심과 열정의 결과들

김지훈 부교수는 의학의 역사와 해부학을 파고들면서 고난도 간암 로봇 수술의 힌트를 얻었다. 비교적 역사가 짧은 간 치료 분야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게 많은 만큼 발견의 재미가 컸다. “교과서를 짝 외우고 휴가지에서도 책을 놓지 않을 만큼 공부에 재미있었어요. 호기심과 열정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죠.” 2D 이미지를 수백 장 그려가며 3D 입체 영상을 재현해 간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했다. 인도시아닌그린(ICG) 형광 물질을 이용해 절제 부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자 출혈 없는 절제가 가능했다. “전립선암이나 직장암, 신장암 등 여러 암종에선 로봇 수술이 이미 보편화돼 있어요. 그러나 간은 여전히 개복 수

술이 주를 이루죠. 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 환자마다 맞춤형 절제를 시도하는 데 해부학적 구조를 공부한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여전히 밝히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지름 1cm의 구멍 4개에 로봇 팔을 넣어 간을 절제하고 치골 상부의 5~8cm 절개창으로 빼낸다. 이때 손 떨림이 보정되고 수술 화면을 10배 확대할 수 있어 혈관이 손상될 위험을 낮춘다. 환자들에겐 상처와 통증, 출혈을 최소화하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수술 당일 오후면 가벼운 활동이 가능해서 환자 만족도가 높아요. 제 입장에선 나이가 들수록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듭니다. 로봇은 계속 발전할 테고 수술은 손이 아닌 머리로 하게 될 테니까요.”

사명감이 없이는

어릴 적 선교에 대한 꿈은 의료계에 몸담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의료를 통해 환자를 섬기고 사랑을 베푸라는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 성장했다. 그래서 석사는 예방의학을 전공하고 내과 공부도 놓지 않았다. 간이식·간담도외과를 선택한 것도 모든 수술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을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5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의료봉사를 간 적 있어요. 외과 의사가 한 번도 온 적 없는 외딴섬이라 저를 많이 기다렸다고 해요. 탈장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있었거든요. 제 전공분야도 아니고 부족한 장비와 환경에서 수술하기란 많이 어려웠지만 질실한 환자께 뭔가 해줄 수 있다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선물받은 경험이었습니다. 늘 좋은 장비와 환경, 전문가 동료들 속에서 ‘내가 잘해서’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와 겸손하게 저의 쓰임을 생각할 수 있었죠.”

그는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내외 간 외과 의사들에게 복강경·로봇 간 절제술을 전수하고 있다. 올해는 2번의 라이브 시연으로 독창적인 술기와 노하우를 전수했다. “전 세계 외과 의사들과 지식을 나누며 다음 세대 외과 의사를 양성하고 싶어요. 간 외과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죠.”

더 채워나가야 할 것들

혼인 전 건강검진에서 대장암으로 인한 간 전이를 발견한 환자를 만났다. 종양이 워낙 크고 대장맥을 누르고 있어 어떤 수술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많은 준비와 노력에도 수술 막바지에 출혈이 발생했다. 김 부교수에게 로봇 수술 중 개복으로 이어진 단 2번의 경험 중 하나였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회진하며 환자를 돌봤어요. 수술 후 환자의 두려운 마음을 살피면서요. 다행히 환자는 재발 없이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감과 위로는 김 부교수가 가장 자신 없어 하는 영역이다. 그런 그에게 한 환자의 감사 편지는 큰 용원이 됐다. ‘교수님이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커서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제 분야에 진심을 다하고 나로 인해 누군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에 오기 전, 새로운 팀을 꾸려 낮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그러나 전 세계 표준을 만드는 선두 병원에서 간 절제술과 다음 세대 트레이닝에 힘을 보태고 싶은 바람도 분명했다.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 목표예요. 열심히 고민하며 여러 의료진과 완벽한 팀을 이뤄 결점 없는 수술을 하고 싶고요. 후학을 위해 교육할 때, 환자가 잘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외래에서 만날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김지훈 부교수(오른쪽)가 복강경 간 절제술을 집도하고 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병원보는 ‘AMC IN(人)sight’ 코너를 통해 진료·교육·연구 분야에서 새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의료진을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응급간호팀 박한희 대리

2012년에 입사해 줄곧 응급실에서 중환자의 활력 징후 변화를 관찰하고 응급 약물과 중재법을 훈련해 왔다. 소생실에서선 CPR, 인공기도 관리, 쇼크 환자 처치 등 응급 상황에 필요한 술기와 팀워크를 익힐 수 있었다. 분석적 사고와 빠른 결단력이 필요한 업무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이송 전담 업무를 맡아 다양한 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임상간호사로서 역량을 키웠다.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 이송 체계를 정립하고 새로운 역할을 의료진에 인식시키는 과정은 그 자체로 큰 도전이었다.

환자·보호자와 동행하는 순간은 짧지만 덕분에 검사를 잘 마쳤다는 인사를 듣곤 한다. “불안을 줄이는 소통에 자신 있어요. 환자 상태를 살피며 상황과 절차를 설명하면 긴장이 완화되는 게 바로 느껴지죠.” 이송 중에 발생한 돌발 상황에 더욱 철저히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전문교육도 받아볼 계획이다.

이송을 마치는 순간까지 환자안전을 위한 동행

응급실 환자의 대부분은 불안정한 상태로 이송 중에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진 동반이 필요한 응급실 환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난해 8명의 간호사가 3교대로 이송 전담 업무를 맡기 시작했다. 대상은 응급실과 ACU, 27병동과 BICU의 응급 환자다. eMET와 중환자실 전담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 이송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각종 지침과 규정을 검토해 응급실 실정에 맞는 이송 기준을 마련했다. 필요한 장비 및 약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상황별 모니터링 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움직이는 응급실’로서 환자안전 시스템을 채워가고 있다.

초기에는 eMET나 일반 간호사로 혼동하는 의료진이 많았다. 응급실과 검사·시술실, 병동을 오가며 의료진의 소통과 중재 창구이자 진료 연속성을 책임지는 시간을 쌓은 요즘은 중환자와 동행할 때 타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얻는다. 하루 20~35건의 이송 의뢰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빈틈없는 중증 치료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검사와 입원 과정을 마무리한 환자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 우리가 맡은 역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짧은 동행이지만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순간마다 ‘고마웠다’라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1. 환자이송팀과 CT검사실로 이동하는 모습.
2. 이송 키트에 산소마스크, 응급 장비 등 물품 목록을 확인하고 있다.
3. 검사실에 도착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인계하고 있다.

박한희 대리는 근무 전 중증도 높은 환자의 기록을 리뷰하고 인계받은 환자를 확인하러 라운딩에 나선다. 오늘의 첫 의뢰는 심실빈맥으로 CPR을 받고 소생한 환자다. ACU의 담당 간호사를 찾아가 환자 정보를 나누고 약물과 활력징후 등 이송 전 체크리스트를 이종으로 확인한다. 환자이송팀과 함께 이동하는 막간에도 환자의 표정을 살피며 불편한 곳을 묻는다. 인계받을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한 정보다.

“‘의료진이 동행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 중에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송 중에도 활력징후와 기도 호흡, 의식, 고위험 약물, 라인 연결 상태 등을 반복 확인하고요. 환자안전은 철저한 확인과 주의를 반복한 결과입니다. 결코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죠.”

폐섬유증으로 가정 산소 요법을 적용하던 환자가 호흡곤란이 심해져 응급실에 내원했다. CT검사실로 이동할 때 박 대리가 동행했다. 혈액 검사에서 이산화탄소 수치가 매우 높아 BiPAP(이중양압기)을 적용한 환자는 처음 사용하는 기계라 적응이 안 되고 불편하다며 힘들어했다. 박 대리는 이동용 모니터를 연결하면서 이 기계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무슨 검사를 위해 이동하는지, 검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천천히 설명했다. 안심한 환자는 한 번 해보겠다며 검사실로 들어갔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환자분과 병실로 함께 이동했어요. 병동에 인계하고 복귀하려는데, ‘아까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작은 목소리의 인사가 들렸어요. 유난히 일이 물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날이었는데 그 한마디에 힘을 낼 수 있겠다더라고요. 제가 환자분께 오히려 위로를 받은 것 같아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이게 우리 일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한 팀원이 환자의 조영제 부작용 위험을 예측하고 모니터링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활력징후와 환자 반응을 근거로 즉각 간호 중재를 시행한 결과 환자는 검사 후 부작용 없이 응급실에서 퇴실했다. 이후 팀에선 성장적 회고(critical reflection)를 통해 무엇을 잘했는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분석하고 학습했다. 경험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논문 자료를 찾아 근거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근거를 찾아 개선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걸 느껴요. ‘월간 이송’이라는 전담간호사 소식지를 통해 이송 관련 정보와 안전 사례를 꾸준히 공유하는데, 이러한 과정 자체가 팀원 간의 활발한 협력을 이끄는 것 같고요. 응급실 환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걸 알기에, 팀원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사진 이야기 ③

AI가 지브리를 모방하는 시대 인간 창작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

멀티모달 AI가 발달하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재조합해 프롬프트 한 마디로 특정 스타일의 영상과 비디오를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브리 스타일(섬세한 구름의 움직임, 따뜻한 색감, 특유의 캐릭터 표현 등)은 거의 완벽하게 재현된다. 작가들은 ‘이제 인간이 그림을 그릴 이유가 있을까’라는 혼란에 빠졌다. 혹자는 더 이상 훈련의 중요성이 희미해진 ‘창작의 민주화’ 시대가 열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를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평생 자신만의 스타일로 작품 활동을 해 온 감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AI가 만든 지브리 스타일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감동과 위안을 받는다면 예술의 일반재화(commoditization)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 없는 사람도 AI를 활용하면 자신이 상상한 장면을 전문가 수준으로 손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예술 창작의 문턱이 일반인까지 낮아진 것이다. 이런 창작 도구의 혁명적 발전과 예술성 결여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지금, 앞으로 인간의 창작 그리고 예술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예술의 진정성

지난 글에서 다루었듯 18세기 사진이 발명되고 초상화가들이 직업을 잃어버린 후 근대 예술가들은 새로운 예술 영역을 개척하며 근대 미술의 황금기를 열었다. 마찬가지로 AI가 스타일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게 되면서 작가는 자신만의 스타일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고 ‘무엇이 진정한 예술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다.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다큐멘터리 사진에 한평생을 바친 거장 세바스티앙 살가도(Sebastião Salgado, 1944~2025)를 통해 ‘작가의 진정성’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살가도는 브라질 출신으로 상파울루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68년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국제개발기구에서 경제분석가로 일했다. 1970년 업무로 방문한 아프리카에서 가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아내의 카메라를 빌려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참상을 알리고자 1973년에 전업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1993년 전 세계 산업 현장의 모습을 기록한 「Workers(노동자)」를 발표했다. 브라질의 세르라 펠라다 노천 금광에서 맨손으로 흙을 퍼 나르는 광부, 유황 가스를 온몸으로 견디며 광물을 캐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초대형 유조선을 해체하는 방글라데시 작업자… 육체노동의 현장이 필름 위에 생생히 담겨 있다. 특히 노천 금광에서 5만 명의 광부들이 200m 깊이로 파놓은 거대한 구덩이를 오르내리며 원시적인 방식으로 금을 채굴하는 장면은 ‘현대판 단테의 지옥도’와 같이 금광의 거대한 스케일과 개미같은 노동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사진1).

아프리카의 기아와 난민 등을 기록한 「Migrations(이주)」는 인종 갈등과 기근, 환경 파괴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이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94년 르완다 내전 당시 수백만 난민의 비극적 행렬, 보스니아 난민 캠프의 모습 등 인류의 반복되는 비극과 그곳에서 싹트는 희망을 기록했다. 절망에 찬 눈빛과 희망을 놓지 않는 표정이 교차하는 사진들은 인간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사진2).

이후 그는 2004년부터 8년간 지구 곳곳을 누빈 환경 사진 프로젝트 「Genesis(창세기)」를 발표한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 자연과 생명을 재발견하는 여정이었다. 남극의 펭귄, 남아메리카의 이과수 폭포,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와 나미브 사막의 붉은 모래언덕, 아마존의 원주민까지… 살가도는 현대 문명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경이와 그 속에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명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사진3).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같은 기원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생명의 존엄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글보다 강력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그의 말처럼 살가도의 작품은 동시대의 증언이 됐다. 흥미롭게도 살가도는 사진 작업에 그치지 않고 고국 브라질에서 아내와 함께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을 되살리는 재삼림화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분쟁과 빈곤의 현장에 들어가 오랜 시간 머물며 그곳 사람들과 삶을 함께했다. 그는 대상에 대해 시혜의식을 갖지도, 반대로 신화화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대상에 다가갈 수 있는 친화력을 중시했다. 현지인과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며 이동했고 친해지기 전까지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 특히 브라질 노천 금광에서는 수만 명의 광부와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고된 노동과 꿈을 기록했다. 「창세기」 촬영을 위해 머물던 인도네시아에서 그는 말라리아에 감염돼 합병증으로 고생하다 지난 5월 백혈병으로 생을 마감했다.



세바스티앙 살가도의 금광노동자, 아프리카 피난민, 코끼리 물범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인간 창작의 미래는?

“AI가 만들어낸 것은 과정이 생략된 결과물이고, 과정 없는 결과물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작가의 노력이나 진정성이 없는 AI 작품들은 너무 쉽게 생산되고 소비되어 진정한 감동을 주기 어렵다. 하지만 이제 형식적 완성도를 올리기 위한 기존의 도제 시스템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차원의 예술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바로크의 대가들이 스케치만 그리면 수많은 도제들이 세부적인 그림을 완성해 역사에 남은 수많은 대작을 만든 것처럼 AI는 반복적이고 기술적인 작업을 대신하며 예술가가 창의적인 작업에 더 집중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웹툰 작가들은 AI를 사용해 배경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그 시간에 캐릭터의 감정 표현에 더 집중하며 “기술을 활용하되 인간만의 감성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AI가 인간 창작의 경쟁자가 아니라 보조 도구로 활용될 때 창의성이 더 빛난다’는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r)」에 실린 연구도 있다.

살가도의 사진이 지금도 감동을 주는 이유는 살가도 본인이 개척한 시각 언어로 세상에 없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겪은 깊은 고민과 흘린 땀, 시행착오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진정성도 AI 시대 인간 창작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믿는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창작 욕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기술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창작 영역을 지키고 독특한 목소리를 잃지 않고 지켜가야 할 것이다.

※ ‘이야기가 있는 산책’은 필자의 전공 분야와 인접한 주제 또는 평소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 온 분야를 산책하듯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11월부터는 정형외과 이호승 교수가 ‘직장에서 운동 즐기기’를 주제로 세 편의 글을 연재합니다.

핵의학팀·디지털정보혁신본부

핵의학 환자 출입국 불편 해결했어요

우리 병원에서 핵의학 영상검사를 받은 환자가 급히 핵의학팀으로 연락해 왔다. 공항 출국심사 과정에서 체내에 남아 있던 미량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탐지돼 발길이 묶인 것이다. 환자가 방사성의약품 투여확인서를 미처 받지 못해 생긴 일이었다. '늘어나는 해외 출국 환자에게 확인서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방법이 있을까?'

핵의학팀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주입한 뒤 감마 카메라로 촬영하는 영상검사를 시행한다.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은 투여 후 1~2일, 상대적으로 고선량이지만 치료용은 1~2주가 지나면 체내 영향이 거의 남지 않는다. 의료진의 판단 아래 안전하게 투여·관리되므로 환자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해외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공항 보안검색대의 방사선 감지기는 극소량의 방사선 물질도 탐지할 정도로 민감해, 체내 잔류 방사성 동위원소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핵의학팀은 출입국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출국 예정자에게 방사성 의약품명과 투여 일자, 목적, 용량 등을 수기로 작성한 증명서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외 출국 환자가 늘면서 증명서 작성 건수도 급증했고 이에 따른 업무 부담도 커졌다. 수기 작성 과정에서 내용이 잘못 기재될 위험도 있었다.

해외연수 중에 찾은 실마리

지난해 5월, 핵의학팀 최종숙 차장이 벤치마킹을 위해 미국 하버드의대 다나-파버 암센터를 방문했을 때였다. 치료실을 둘러보다 방사성의약품 투약기록지가 전산에서 자동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 병원도 방사성의약품 투여 정보를 전산에 모두 기록하고 있으니, 이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 병원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 차장이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핵의학팀과 디지털정보혁신본부가 협업을 시작했고, AMIS 3.0 화면에서 방사성의약품 투여확인서를 자동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곧 개발했다. 확인서를 더 이상 수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니 업무 부담이



방사성의약품 투약확인서 자동 출력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핵의학팀과 디지털정보혁신본부 직원들.

크게 줄었다. 전산에 입력된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기 때문에 기록 오류 가능성도 사라졌다. 자동 출력 시스템을 도입한 뒤로는 출입국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수기로 진행하던 일을 전산으로 처리하면서 업무 효율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미리 해소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기쁩니다. 협업에 큰 힘이 되어주신 디지털정보혁신본부와 협력업체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핵의학팀

외국인 환자에게 닿은 협업

시스템을 개발 중이던 어느 날, 국제진료센터에서 핵의학팀으로 연락이 왔다. 우리 병원에서 핵의학 검사를 받은 외국인 환자가 공항에서 체내 잔류 방사선 때문에 입국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야기였다. 핵의학팀은 개발 중인 확인서 자동 출력 시스템을 안내하고, 국제진료센터에서도 직접 확인서를 출력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치료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갖고 먼 곳에서 우리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협업의 의미를 더욱 느낄 수 있었다. "국제진료센터에서 곧바로 방사성의약품 투여확인서를 받아갈 수 있게 되니, 외국인 환자들에게도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환자와 직원 모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 디지털정보혁신본부

※ 병원보에서는 '협업의 가치' 코너를 통해 다양한 직종, 부서 간 협업 사례를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협업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돌아오고 싶은 곳



암병원간호1팀 정윤서 주임

입원하는 환자에게 병동은 긴장되고 무서운 곳이다. 수술이나 치료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오더라도 막상 입원하게 되면 착잡한 마음이 든다. 계획표로 치료 과정을 인지하는 것과 그 과정을 실제로 겪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두려운 장소. 나 역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환자가 생각하는 병동은 그런 공간일 것이라 생각했다.

식도암 수술 후 여러 합병증으로 몇 해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던 환자가 있었다. 내 기억 속 환자는 과묵하고 무심한 분위기를 풍겼다. 수술 후 처음 식이를 진행하는 기쁜 날에도, 다시 상태가 나빠져 금식하게 됐을 때도, 크게 좋아하거나 상심하는 모습 없이 늘 비슷한 느낌이었다. 환자는 긴 치료 과정에서 한 번쯤 나올 만한 불평조차 없이 그저 묵묵히 견뎠다. 호전 없는 컨디션과 조용한 병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지만 유독 그 방안에서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어려웠다.

환자가 힘든 시간을 조용히 견디는 것처럼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비밀상적인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이 되지 않고 조금이나마 환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계속해서 작은 대화를 시도했다.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 환자에게 TV에 야구가 나오면 야구 이야기, 골프가 나오면 골프 이야기를 꺼냈다. 경기 규칙은 잘 몰라도 어떤 팀을 응원하는지, 응원하는 선수가 잘하고 있는지 같은 시답잖은 질문을 던졌다. 환자는 병실 블라인드를 내려 두곤 했는데, 날씨가 좋을 때면 블라인드를 올려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환자는 말

을 많이 하거나 표정의 변화가 크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을 걸면 짧게나마 대답하고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환자는 반복적인 폐렴의 악화로 중환자실을 더 자주 오가게 됐다. 어느 날 장기간 중환자실 재실 후 병동으로 올라온 환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병동에 오고 싶었어." "병동이 그리웠어." 무덤덤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마스크 속에서 이를 악물고 겨우 눈물을 참았다. "중환자실에서 많이 힘드셨죠. 다시 회복해서 보호자분과 나란히 복도를 산책하시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어렵게 한마디를 건넸다. 그 순간 깨달았다.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공간일 수 있는 병동이 돌아오고 싶은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가 표현이 서툰 환자에게 용기를 주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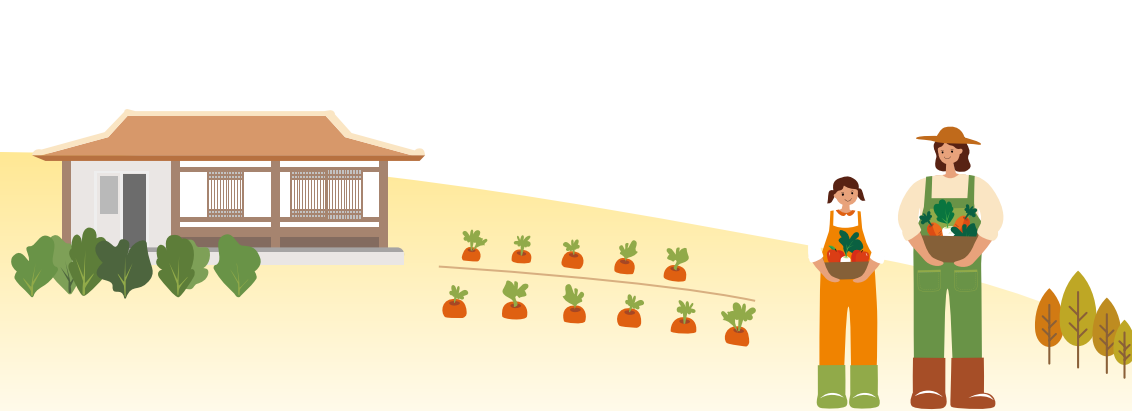
비슷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환자는 다시 갑작스럽게 중환자실로 내려갔다. 짐을 챙기러 온 보호자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자 "다시 좋아져서 올라오실 거예요. 믿어요"라며 미소를 보이고 병동을 떠났다. 그 인사가 우리의 마지막이 됐다.

그 후로 나는 처음 입원하는 환자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이하려 노력한다. 중환자실에서 병동으로 올라오는 환자에게는 "고생 하셨어요." 한마디를 건네며 마음의 긴장을 덜어드리려 한다. 병원의 특성상 공간이 주는 무게감이나 분위기는 쉽게 바꾸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건네는 작은 말과 행동으로 병원과 병동이 너무 무겁지 않은 장소로 남길 바란다. 중환자실로 내려가는 분에게는 하루빨리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길, 그리고 우리 모두가 환자에게 그런 힘이 되길 바란다.

※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는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적어 내려간 희망과 극복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올 가을엔 팜스테이

최근 좋은 호텔을 찾는 '호캉스'보다 시골로 떠나 자연을 즐기며 힐링하는 '촌캉스'가 주목받고 있다. 녹음 짙던 나무가 노랑고 빨강게 물들어가는 10월, 바쁜 일상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팜스테이'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우리 병원에서 차로 2시간 내외로 닿을 수 있어 주말 나들이로 부담 없고 농촌 풍경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팜스테이 마을을 소개한다. <편집실>



1 #수박떡바 #백제문화

부여기와마을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부여에 위치해 있어 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박물관, 부소산성 등 역사가 깃든 장소들을 함께 둘러보기 좋다. 백제떡 만들기, 부여에서 생산되는 수박과 농산물로 만드는 '수박떡바' 만들기, 알록달록하게 물들인 쌀알을 활용한 나만의 주얼리, 과일 찹쌀떡 만들기 등 이색적인 체험이 다채롭게 운영되고 있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월함로 277

무수천하마을

'하늘 아래(천하) 근심이 없다(무수)'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마을로, 대전 도심과 가까워 연계해 여행하기 좋다. 두부 만들기, 고추장과 쌈장 담그기 같은 전통 식문화 체험과 손수건, 예코백 천연염색 등 공예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겨울에는 지역 특산물인 천혜향도 직접 수확해 볼 수 있다. 전국 최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4회 연속 선정된 곳이다. 대전 중구 운남로 85번길 5



2 #천연염색체험 #대전근교여행



3 #잣나무숲 #전통체험

초롱이등지마을

경기도 가평군 최남단 마을로 가평군에서 유일하게 원시림 자연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다. 국내 잣 생산량의 약 60%가 이곳에서 나오는 만큼 피톤치드가 풍부하게 배출되는 잣나무 군락이 장관을 이룬다. 고구마, 들깨, 표고버섯, 목이버섯 수확과 추석맞이 송편 빚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가평 쌀로 빚는 막걸리 만들기 프로그램도 인기다.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902번길 13



4 #북한강뷰 #강원도여행

원평팜스테이마을

뒤로는 화악산, 앞으로는 북한강이 흐르는 마을에 들어서면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든다. 마을 중심의 춘천호는 여름엔 낚시터, 겨울에는 썰매장이 되고 사계절 자연경관을 벗삼아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내려 준다. 토마토 따기, 검은콩 두부, 재래식 된장 만들기, 떡메치기 등 손맛 나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강원 춘천시 사북면 말고개길 82-35



5 #농사체험 #가족나들이

양평외갓집체험마을

물 맑은 양평에 위치해 매년 8~10만 명이 찾는 인기 팜스테이 중 하나다. 고구마 캐기, 멜론 따기 같은 농사 체험뿐만 아니라 솔뚜껑에 전 부쳐 먹기 등 집에서는 하기 힘든 먹거리 체험을 할 수 있다. 물미끄럼틀, 뗏목, 트랙터, 마차 타기 등과 같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하기 좋다.

경기 양평군 청운면 신론로 344



6 #팝콘체험 #충주사과 #한옥숙박

긴들체험마을

충주시 가장 서쪽, 드넓은 들판 한가운데에 자리한 마을. 직접 재배한 충주사과발효액과 비유전자변형 옥수수로 만드는 사과팝콘 체험 프로그램이 유명해 '팝콘마을'로도 불린다. 마을 들판에서는 전국 쌀 품평회에서 수차례 대통령상을 받은 고품질 쌀이 생산된다. 사과 따기, 도토리 줍기, 달구지 타기, 허브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한옥 고택 숙박도 가능하다.

충북 충주시 신니면 내포길 30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

건진운영팀 플로깅 봉사

노을처럼 따스한 발걸음



건진운영팀 전수린 사원



건진운영팀에서는 GWP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월 1회 병원 인근 플로깅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GWP는 Great Work Place의 약자로, 동료 간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부서 내부 위원회를 말한다. 보통은 팀 행사를 준비하거나 유닛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매해 GWP 활동으로 빼놓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플로깅 봉사활동이다.

나는 위원회장으로서 유닛별 봉사 일정을 조율하고 다른 유닛과 겹치지 않는 동선을 선정한다. 간식 준비하기, 플로깅 활동을 위한 도구 세팅하기, 마지막으로 참여자 명단에 서명

까지 완료하면 내 역할의 절반은 끝이 난다.

나머지 반은 현장에서 진행되는 봉사다. 올해 3월에는 한강 둔치, 9월에는 풍납동 인근을 돌았다. 우리는 2~3명씩 한 조가 되어 한 손에는 거대한 노란색 쓰레기봉투를, 다른 한 손에는 기다란 플로깅 집게를 들었다. 아직 발견되지 못한 채 거미줄에 대롱 걸린 쓰레기들을 주웠다. 무심히 지나다니는 출퇴근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니 우리 병원을 찾는 내원객들이 밟을 이 거리가 얼마나 청소와 도움이 필요했는지 느껴졌다.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며 풍납동을 활보하는 게 신나기도 했다.

'봉사'라는 것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나고 의미 있는 활동이다. 같은 팀 동료들과 한마음으로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병원 뒤로 지는 노을의 온도와 비슷한 따스함이 마음 깊은 곳부터 차올랐다. 비록 한 시간 남짓 걸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약 반년 동안 우리가 일하는 곳과 이곳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생각해보는 귀중한 활동이었다. 팀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다.

굿바이
콩글리시

지하철이나 사무실에서 '쿨룩쿨룩' 기침 소리가 들리면 괜히 목이 간지러워진다. '기침이 많이 나와요'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 "I cough a lot"이라고 하면 어색하다. 현재형은 습관적 기침을 의미하므로, 증상을 말할 때는 "I'm coughing a lot"처럼 현재진행형이나 "I have a bad cough"라고 하자.

기침이 많이 나와요

☹️ I cough a lot.

😊 I'm coughing a lot.

😊 I have a bad cough.

Let's Talk

A How are you feeling? 컨디션이 어때요?

B I have a bad cough. 기침이 많이 나와요.



가끔 소변에 거품이 동동 뜨는 경우가 있다. 거품뇨를 벌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증상이 계속되면 신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의료진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때 "I have bubble in my urine"보다는 원어민스롭게 "My urine is foamy/bubbly"라고 말하자.

소변에 거품이 껴요

☹️ I have bubble in my urine.

😊 My urine is foamy.

😊 My urine is bubbly.

Let's Talk

A What brings you in today?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B I noticed my urine is foamy. 소변에 거품이 껴요.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임상시험센터 이항기 연구코디네이터

'잡(job)·담(談) - 중증 간호, 냉정과 열정 사이'를 통해 황보현 대리님의 간호이야기를 접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중증·고위험 환자를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의 진심이 전해져 저 역시 업무에서 전문성과 보람을 찾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내과간호2팀 임하운 대리

'마음건강노트 - 함께 회복하는 이차 피해'를 읽으며 저와 동료 간호사까지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환자안전 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후유증은 크기와 깊이가 다양해 쉽게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에만 몰두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나와 동료의 심리적 회복과 성장에도 관심을 쏟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방사선종양팀 이은별 사원

'AMC IN(人)sight' 김연주 교수님의 환자와 소통하고 교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암환자에게 웃음과 신뢰를 주려는 교수님의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심장병원 안지은 과장

'이야기가 있는 산책 -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동서양의 시선' 김남국 교수님이 소개한 사진 2장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의 삶에서 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요!

심장병원간호팀 이상란 선임기능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 - 마음까지 데운 삼계탕 나눔데이' 코너에서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나눔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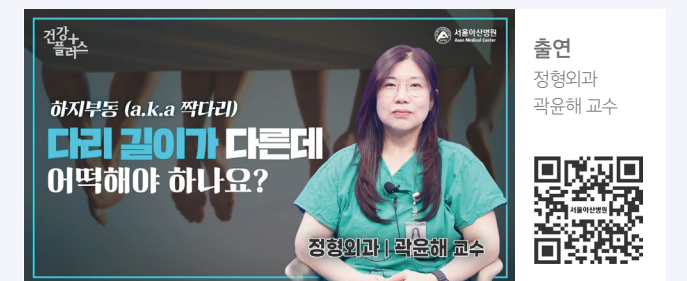
SNS 돌보기

[암행의사] 남성암 10위 방광암, 혈뇨가 보이면 의심!



방광암은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 10위를 차지하며 매년 발생률이 44% 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군이나 흡연자들에게 발병 위험이 높게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뇨의학과 임범진 부교수가 방광암의 증상과 치료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건강플러스] 다리 길이가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기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다리 길이가 달라 보일 때가 많지만, 드물게는 신생아 고관절 발달성 탈구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리 길이 차이는 골반 높이와 척추 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합니다.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 원인부터 실제 치료 과정을 정형외과 곽윤해 교수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